

국어영역

1. 정답 : ㉔

해설 :

연설문의 앞부분에 ‘여러분~ 아팠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중들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공감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에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2. 정답 : ㉔

해설 :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을 살펴보면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강연자는 야생 조류의 충돌사고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방안들에 대한 의혹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3. 정답 : ㉕

해설 :

연설문에 세 번째 단락에 자외선 반사테이프를 붙이면 야생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료2>는 ㉑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4. 정답 : ㉕

해설 :

학생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1이 제시한 대안이 적절하지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학생1의 의견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의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5. 정답 : ㉑

해설 :

㉑은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하기만 했을 때는 평범한 글이 될 수 있다는 문제상황을 근거로,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6. 정답 : ㉕

해설 :

[B]에서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고 제시한 부분을 반영하여, [C]에서 ‘제당 뒤편으로 ~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는 구절이 드러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7. 정답 : ㉔

해설 :

조건이 학생3의 대사에 드러나는데,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대조의 표현 방식’등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한 표현은 4번이다.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 청정한 사랑시,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에 그러한 요소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8. 정답 : ㉕

해설 :

㉑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에 대해서는 초고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9. 정답 : ㉔

해설 :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하면, 실제 역사와 사극이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부각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10. 정답 : ③

해설 :

비판하는 글 쓰기

[A]의 관점 : 사극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보기>의 관점 : 사극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 ③ :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균형을 유지한 관점에서 [A]를 비판했다.

오답 정리 ① :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역사적 사실 중심의 관점. ② :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상력 중심의 관점. ④ : 사극에서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을 사실로서의 역사로 보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 중심의 관점. ⑤ :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역사적 사건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므로 역사적 사실 중심의 관점.

11. 정답 : ④

해설 :

국어사 - 내용 추론하기

정답 : ④ - ‘노퍽’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를 통해 파생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고, ‘노피’는 ‘노피 낙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를 통해 파생 부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정리 ① : 여름-열매, 여름미-열림이를 통해서 볼 때 여름은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이 사용된 명사이고, 여름미는 서술어로 사용 되었음을 통해 동사의 명사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을 통해 거름은 명사,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거름’은 음성 모음 ‘ㄴ’ 뒤에 ‘움’이 결합했음을, ‘노퍽’은 양성 모음 ‘ㄱ’ 뒤에 ‘옴’이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인데, 중성모음으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 정답 : ④

해설 :

품사 - 적용하기

정답 : ④ - ㉠ :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를 통해 서술성을 가지는 품사로서 사용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특징과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④번의 ‘도움’과 ‘믿음’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도움.’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의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정리 ① : ‘얇’은 서술성이 없고, 격조사와 결합 했으므로 틀렸다. ‘슬픔’은 서술성이 없으므로 틀렸다. ② : ‘볶음’은 서술성이 없으므로 틀렸다. ③ : ‘묵음’은 서술성이 없다. ⑤ : ‘울음’은 서술성이 없다.

13. 정답 : ①

해설 :

한글 맞춤법 - 사이시옷

정답 : ① - ㉠의 ‘도매가격’과 ‘도맷값’은 모두 합성명사에 해당 하므로 ㉡의 조건에는 부합 하지만, ‘도매가격’이 ‘한자어+한자어’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정답 : ①

해설 :

음운변동

정답 : ① - ㉠의 비표준 발음인 [글른]과 ㉡의 표준 발음인 [잘레]에서는 각각 자음군 단순화 이후 ‘ㄱ’이 ‘ㄹ’로,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고, ㉢의 표준발음인 [궁느]과 ㉣의 비표준 발음 [짚네]에서는 각각 ‘ㄱ’이 ‘ㅇ’으로, ‘ㅂ’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과 ㉥의 표준발음인 [끈키고]와 [똥치]에서는 각각 ‘ㄱ’이 ‘ㅋ’으로, ‘ㅈ’이 ‘ㅉ’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15. 정답 : ⑤

해설 :

문장 표현

정답 : ⑤ - ㉔의 조건은 첫 번째 ‘꿈 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 두 번째 ‘화자가 자신의 행동,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 진술하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⑤번 선지는 ‘나(1인칭)’의 주관적 느낌을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정리 ① : 약속이 있는 것은 ‘다음 주’이고, 수첩을 본 것은 ‘아까’이므로,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다. 따라서 ‘-더’를 쓸 수 있다. ② : 1인칭 주어인 ‘나’만이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인 ‘놀랍다’가 서술어이므로, ‘-더’를 쓸 수 있다. ③ : ‘밋다’의 주어가 ‘너(2인칭)’이므로 의문문으로 사용할 때 ‘-더’를 쓸 수 있다. ④ : 수사 의문문은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의 수사적 효과를 가지는 의문문이다.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는 수사 의문문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더’가 1인칭 주어인 ‘우리’와 함께 쓸 수 있다.

16. 정답 : ②

해설 :

글의 구조 확인

정답 : ② - 위의 글은 서학의 수용에 따른 서양 의학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조선의 학자 이익과 최한기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17. 정답 : ④

해설 :

내용 확인

정답 : ④ - 2문단 5줄에서 아담 살은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18. 정답 : ③

해설 :

밑줄 추리

정답 : ③ - 3문단에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도 서양 의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식이나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으며, 지동설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또한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었고, 조정의 서학에 대한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9. 정답 : ③

해설 :

- ㄴ. 최한기는 인간의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ㄴ)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보았다.(ㄷ)
- ㄷ. ‘심’을 오장의 하나인 심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심주지각설이다.
- ㄹ. 최한기는 신기를 대소(大小)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20. 정답 : ②

해설 :

<보기>의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깃든 곳을 두뇌로 보고 있으므로 두뇌에서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나 최한기는 5문단에서 뇌가 운동, 지각을 주관한다는 뇌주지각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1. 정답 : ⑤

해설 :

㉔ 맹신하다 :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음

22. 정답 : ③

해설 :

'비례 원칙'이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속 법규란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례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3. 정답 : ②

해설 :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상황은 '임의 법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의 계약내용이 있다 해도 계약내용을 우선 적용하고(ㄷ) 없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ㄱ) 또한 임의 법규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정할 수 있으므로 수선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법률과 다르게 계약했다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ㄱ, ㄷ)

24. 정답 : ①

해설 :

㉑은 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㉒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둘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25. 정답 : ③

해설 :

<보기>가 최소한으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면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뒤 계약은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벌금 외에도 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벌금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6. 정답 : ⑤

해설 :

㉔ (사람이 의무나 책임 따위를) 자신의 것으로 하다.

- ① (어디에 무늬가) 나타나게 되다.
- ②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이나 신세 따위를) 얻거나 입어서 갚아야 할 처지로 되다.
- ③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게 맺어지게 되다.
- ④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등에 짊어서 었다.

27. 정답 : ①

해설 :

(가)에서는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공간을 통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립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에서는 우포늪이라는 자연 공간과 인간의 조화를 형상화했으며 (다)에서는 오심암이라는 자연의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28. 정답 : ③

해설 :

③ (가)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서사적인 흐름을 통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29. 정답 : ②

해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의미하며,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먼지 없는(순수한) 세계를 의미하므로 정답에 부합한다.

30. 정답 : ⑤

해설 :

⑤ [E]는 날아가는 왓새와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의 통합된 예술의 경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꾼이 완창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날아가는 왓새로 표현한 것임.

31 정답 : ④

해설 :

④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티끌'은 티, 먼지로 표현한 으로 순수한 세계 지향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이다.

32 정답 : ④

해설 :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각각 의미가 '쫓겠습니다. 비치거든'으로 임의 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 ① (나)의 건덕궁은 가고 싶은 공간으로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아님.
- ② (가)의 '질삼뵈'는 화자의 생계 수단이며, (나)의 '빈 낙대'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나타낸 소재이다.
-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츠리잇가'은 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나타나고, (나)의 '반기실가'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의혹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33 정답 : ⑤

해설 :

가을 달 밝은 밤'과 '월중'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이다.

34 정답 : ②

해설 :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나타낸 것은 화자에 대한 믿음과 일편단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바위'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35 정답 : ③

해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문단에서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정답 : ①

해설 :

① 3문단에서 직접 방식에서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그래서 직접 방식은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하는 것이 된다.

37 정답 : ④

해설 :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고,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할 비율을 말한다. <보기>는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결과 민감도가 높은 경우와 (A)와 특이도가 높은 경우 (B)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

38 정답 : ②

해설 :

LFIA 키트는 직접방식과 경쟁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직접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살모넬라균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②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는 직접방식에 해당한다. ②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9 정답 : ③

해설 :

[A]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장면이다. '참옹고집'은 자신의 소견대로 제가 할 말을 '깊옹고집'이 앞서가며 먼저 말 해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깊옹고집'보다 더 몰라보니 답답한 심정이다. '참옹고집'의 이러한 답답한 심정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40 정답 : ③

해설 :

'깊옹고집'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보고 죽겠다고 집근처에 온 '참옹고집'을 도술 보고 알고 있을 뿐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41 정답 : ①

해설 :

<보기>는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깊옹고집'에게 쫓겨난 '참옹고집'을 통해 보여준다. 그런데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송사에서 이기고 돌아 온 '깊옹고집'이 한 말이다.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들은 '깊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깊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누라와 못 아들이 한 말을 통해 볼 때 '참옹고집'이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

42 정답 : ④

해설 :

[B]에서는 '짚옹고집'이 '참옹고집'을 사환을 시켜 데려와서 '참옹고집'의 잘못을 말하며 '개과하라'고 말을 들은 뒤에 '참옹고집'이 잘못을 깨달으므로 '인물의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도사의 '개과천선하라'는 발화 이전에 이미 '참옹고집'은 도사에게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 정답 : ①

해설 :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진술을 통해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44 정답 : ⑤

해설 :

'은자'는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미나 박'이라는 밤무대 가수가 된 지금의 자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찾아주지 않는 서운함을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고 있다. '나'는 '은자'의 전화를 받고 고향 친구 '은자'를 떠올리며 과거를 떠올려 돌아보고 있다.

45 정답 : ②

해설 :

<보기>에서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본문에서 '그들은 인생을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할 굳건한 쇠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가 양면성을 발견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